

# 익산시, 악취민원 저감정책 펼쳐

### 악취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악취배출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기존 750배→500배 이하로 강화

익산시가 악취 민원과 관련해 악취 저감 정책을 펼쳐 민원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창숙 복지환경국장은 10일 익산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익산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제1·2상업단지 내 90개소를 비롯해 왕궁면 부산물 비료제조업체 영농조합법인 부성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올해 1월 부터 악취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배출구 기준)을 기존 750배에서 500배 이하로 강화해 악취배출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있다"면서 "악취시설 개선 유도 등 악취배출사업장 14개소에서 총 28억 원의 시설(자체)개선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하절기(5~10월)에 악취해소 야간상환실을 운영해 야간 악취 민원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

다면서 녹색환경과 청소 자원과 또는 하수도과 직원이 2인 1조를 근무하며 악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 및 야간순찰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창숙 국장은 "올해 초 영명농장을 축산시설 폐업을 시작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하절기에 집중되는 악취 민원의 해소를 위해 24시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숙 복지환경국장은 10일 익산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익산=우병희기자

##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최종합동점검 실시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오는 16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대비 관계부서 합동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이승복 부시장 주관으로 관광진흥과 등 12개 관련 부서장 및 직원들이 함께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내부 도로와 주차장 공사로 인한 교통, 주차관련 사항 확인과 화장실 및 샤워장의 관광객 주요 편의시설 점검, 인공식당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식당·숙박업체 위생 상태와 물가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 개장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위해 구비해둔 인명구조장비와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서와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해상 인명구조대를 구성해 매일 30여명 정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상시 운영,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이후 첫 개장을 맞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올해에도 많은 피서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장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원을 기해달라" 부시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고용·산업위기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군산상의, 김임준 시장 초청 간담회 열어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7월 초 부임한 김임준 군산시장을 초청해 고용·산업위기의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10일 리즈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군산상공회의소 의원사 50여개사와 소상공협회 등 지역 내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김동수 회장은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산업위기와 고용위기를 맞은 지역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바닥을 쳤으니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 가는데 의지와 힘을 모아야



군산상공회의소는 7월 초 부임한 김임준 군산시장을 초청해 고용·산업위기의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 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GM 군산공장의 전기차 생산기지의 재가동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활성화와 관광 농수산 산업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지역경기 회생을 위한 방안을 찾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 제8대 군산시의회 211회 임시회 개최

제8대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임시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2018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10일 1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논의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제2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빈집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라는 제목으로 이미 집행부에 빈집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각종 안전사고 위생상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빈집정비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재조사를 실시해 가장 '군산시 빈집정비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자활사업 및 군산시 일자리 창출사업, 맞춤형 빈집 활용방안 등 군산시가 장단계계획(3년~5년)을 수립,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협치와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군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세계축제협회 연차 총회, 군산 지스코에서 열린다

### 군산시 주최·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관 '축제를 통한 도시재생' 을 테마로 발표 진행

2018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연차 총회 및 제12회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시상식이 군산재단 금강밸런스센터(GSC)에서 열린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외 축제전문가인 요한 몰렌(Johan Moeman) 네델란드 축제공사 사장 제프 커티스(Jeff Curtis) 세계축제협회 의장, 마리 미체스키(Marie Myschetsky) 덴마크 코펜하겐 컬처나이트 총괄매니저 등이 '축제를 통한 도시재생'을 테마로 발표를 진행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앙정부 주요 축제정책방향 설명을 비롯한 빅데이터 기반 관광솔루션 및 관광트렌드, 문화관광축제의 변화와 주요 이슈 등을 주제로 분야별 축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이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피너클 어워드 시상식은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에서 12년째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엄격한 기준과 평가를 거쳐 선발된 전국 30여개의 경쟁한 축제들이 분야로 경쟁하여 수상의 영광과 함께 미국 세계축제협회(IFEA) 본산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관광공사, 보령

머드축제조직위원회, 진주문화예술재단, 영동축제관광재단, 시군 지자체 등 30여개 기관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성공적인 축제(군산이행)로 높이 평가돼 개최지로 선정된 군산은 이번 행사에서 성공사례로 소개되며 문화관광과 축제의 선진도시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세계축제협회 총회 및 시상식 개최를 통해 문화관광 선진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잠재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축제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트렌드를 읽어 군산이행과 시간여행축제가 새로운 축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축제협회(IFEA)는 전 세계 5개 대륙, 50개국 회원국과 5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 최대의 축제 이벤트 단체로, 세계적인 축제의 네트워크 구축과 축제경영의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1966년에 설립돼 미국 아이다호(Idaho)주 보이시(Boise)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지부는 2007년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개설됐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시 평화육교 차량통제로 인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운행

익산시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 운행 한다고 밝혔다.

시는 평화육교 재가설공사 구간 차량 통제 및 평화 재가설파트 앞 대체도로 우회운행으로 평화사거리 교통혼잡과 시내버스 운행거리 증가로 기존노선 체계로는 시민불편이 예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미널을 경유 삼덕, 민경, 대정리 등 김제방면과 임피, 대야 등 평화육교를 경유하여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타미널을 중심으로 지·간선제를 시행 하고 이를 위해 타미널 맞은편 부지에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모현동 택지지구에서 익산역과 타미널로 이동하고자 하는 모현동 지역 주민들의 시내버스 신설요청에 따라 배산체육공원-타미널-동산 삼호 아파트를 운행하는 109번 시내순환노선, 원여교-타미널을 운행하는 200번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모현동에서 익산역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33, 38, 39-1, 39-2, 41, 41-1번 노선에 대하여 중앙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운행하도록 노선을 개편했다.

/익산=우병희기자

## 익산시, 청년정책 설정 위한 토론회 참가자 모집

익산시가 오는 18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청년 정책 시장 공약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을 위해 익산시청의 공약 사업으로써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 정책을 반영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방식은 그룹별로 동사에 이취지련관에서 열리는 청년 정책 시장 공약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토론회의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11일부터 16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www.ksan.gov.kr)를 참고해 익산시 민생경제과 팩스(☎869-5061) 또는 이메일(aics144@kora.kr)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